



6일 오후 두바이 알나스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뒤 대표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 최강 재확인... “어게인 2002”

<Again>

## 한국축구, 박주영·기성용 연속골 UAE 제압 월드컵 본선행

허정무호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3승3무)을 시작으로 최종예선(4승2무) 6차전까지 무려 12경기 연속 무패(7승5무)를 질주하며 일찌감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7일(한국시간) 새벽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UAE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해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무더위와 시차적응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극전사들은 경기 초반부터 뛰어난 협력 수비와 골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 전반전에만 2골을 넣으면서 후반 초반 김정우(상남)의 경고누적에 의한 퇴장으로 말미암은 수적 열세를 극복했다.

◇집중과 압박의 힘=불에 대한 집중력이 초반 득점을 불렀고, 공격리안부터 상대 역습에 대비한 1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UAE를 압도했다.

전반 8분 터진 박주영(AS모나코)의 선제 결승골은 집중력의 산물이었다.

이창용(서울)이 내준 불을 박주영이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등지면서 가슴 트래핑으로 불을 확보했다. 박주영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해 오른발 슛으로 골대 왼쪽 구석을 노려 결승골을 뽑아냈다.

전반 37분 터진 기성용(서울)의 추가골도 불에 대한 집중이 만들어낸 행운의 골이었다. 기성용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내준 크로스를 UAE 수비수가 백패스 하는 순간을 노렸고, 골키퍼가 거꾸러내다 놓

친 공을 끝까지 따라가 약삭같이 따내 기여코 텅빈 골문을 향해 추가골을 성공했다.

적극적인 압박 역시 UAE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왼쪽 날개로 나선 박지성은 폴백 이영표(도르트문트)와 자리를 바퀴며 상대를 철저히 봉쇄해 미드필더와 수비수 역할을 번갈아 맡으면서 ‘감칠 심장’의 면모를 보였다.

오른쪽 폴백 오범석(사마라)도 후반 17분 상대 선수의 슛 상황에서 끝까지 몸을 날리는 적극적인 방어로 실점 위기를 넘겼다.

◇수적 열세를 공세로 극복=한국은 후반 3분 수비형 미드필더가 김정우가 경고누적으로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무더위 속에 체력소비가 많았던 대극전사들로서는 후반전 내내 수적 열세를 견뎌야 했다.



이 때문에 허정무 감독은 이근호(이와타)를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 조원희(위건)를 투입해 박주영을 원톱으로 세우는 4-4-1 전술로 UAE를 상대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대표팀은 수비적인 대응보다 박지성을 중심으로 발이 빠른 이창용(서울)을 활용한 역습으로 UAE 수비진을 괴롭혔고, 기어이 후반 종료 직전 UAE의 미드필더 히탈 사이드의 레드카드를 유도해 위기를 벗어났다.

◇2% 부족한 세트플레이=완벽한 승리에도 세트플레이의 완성도는 여전히 갈고 닦아야 할 과제로 남았다. 대표팀은 전반에만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 세 차례 프리킥을 얻었지만 골과 거리가 멀었다.

이날 대표팀 세트플레이의 특징은 근거리 선수를 겨냥하기보다 수비수 뒤편으로 돌아들어 가는 아군을 겨냥한 것이다.

키커로 나선 기성용은 헤딩이 뛰어난 수비수 이정수(교토)의 머리를 향하려 다소 긴 프리킥을 쳤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며 골 상향을 만들지 못했다. 그나마 후반 15분 기성용의 코너킥을 이정수가 골 지역 중앙에서 머리에 맞췄던 게 제대로 호흡을 맞춘 세트플레이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연도	경기	승	무	패	득점	실점
54년 스위스 (1980)	54년 6월 벨기에 1-3패	0	1	2	0	5
56년 멕시코 (2004)	56년 6월 아르헨티나 1-3패	0	1	2	0	5
90년 이탈리아 (22위)	90년 6월 벨기에 0-2패	0	0	2	0	2
94년 미국 (20위)	94년 6월 스페인 1-3패	0	0	2	0	4
98년 프랑스 (20위)	98년 6월 프랑스 1-3패	0	0	2	0	2
2002년 한·일 월드컵 (4위)	02년 6월 폴란드 2-0승	2	0	0	2	0
06년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06년 6월 미국 1-1무	1	1	0	2	1
2006년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06년 6월 터키 2-1승	1	1	0	3	2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	10년 6월 튀니지 2-1승	1	1	0	3	1

## “기쁘고 흥가분... 16강 꼭 가겠다”

### 본선행 이끈 허정무감독

허정무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뒤 “16강에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허정무 감독은 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 최종예선 6차전에서 2-0으로 이긴 뒤 인터뷰에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한 뒤 “흥가분하다. 하지만 본선 진출로 큰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 감독과 일문일답.

- 승리 소감은.
- ▲오늘 경기 마무리 잘했다. 기쁘다. 선수들이 열심히 잘했다. 고비가 수없이 많았지만 잘 넘겼다. 코칭스태프가 수고 많았다. 팬들에게 고맙고 너무 기쁘다.
- ▲처음에는 지옥의 조에 속했다고 하고 어려운 팀과 경기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본선 진출에만 초점을 뒀고 같이 진출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도 함께 진출하면 좋겠다.
- 2000년에 대표팀 감독을 하다 2002년 월드컵 때는 감독에서 밀려났는데, 소감은.
- ▲2000년 당시 올림픽 팀을 지휘하면서

2002년 월드컵 때도 감독을 할 거라 생각했다. 어린 선수를 많이 발탁했는데 결국엔 허 감독이 대표팀을 맡았고 좋은 성적을 냈다.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번에 월드컵 티켓을 따 기쁘고 책임감이 크다. 본선 무대는 쉽지 않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축구협회와 심도 있는 얘기를 하겠다. 부족한 점 보완해 본선에 나가겠다.

- 최종예선 두 경기 남았는데.
- ▲일단 일정상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는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사우디는 중국에 들어가 훈련을 했고 우리로서는 어웨이 경기를 하는 것이다. 피로 회복이 관건인데 필요하다면 (비주전)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
- 어떻게 본선 진출을 축하할 예정인가.
- ▲아직 경기가 남아 있다. 선수와 코칭스태프와 팬들에게 고맙다. 일단 선수들은 기쁨을 느끼고 다음 경기에 대비해야 한다. 예선 경기가 모두 끝난 뒤 기쁜 마음을 느끼게 하고 본선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 월드컵 본선에서 목표는.
- ▲높을수록 좋겠지만 예선을 다 끝내고 정리를 해야 한다. 축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본선에 대비하겠다. 어웨이에서는 16강에 못 올라가 일단 16강 진출이 목표다. 우리 선수들은 불이 붙으면 무섭다. /연합뉴스



2010월드컵출전권을 따내고 기뻐하는 허정무감독과 박지성선수. /연합뉴스

## 남북 동반 진출 가능할까

### 한국 사우디 잡아주면 北 남아공행 유리

한국은 7일(한국시간) 새벽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 최종예선 6차전 원정경기에서 2-0 승리를 넘어 남은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B조 2위를 확보해 남아공행 직행 티켓을 얻었다.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7회 연속이자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통산 여덟 번째 본선 진출 쾌거다.

반면 북한은 안방으로 불러들인 이란과 맞대결에서 득점 없이 비기면서 8강 진출 실패를 초조했던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4년 만의 월드컵 본선행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란을 이기면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조 3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북한은 오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서 본선행 티켓에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상 첫 남북한의 월드컵 동반 진출 가능성은 살아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남아공 직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북한과 잇단 경기에서 모두 승점 3

점을 챙긴다면 북한은 A조 3위와 플레이오프, 오세아니아팀과 경기를 통해 남은 한 조의 티켓을 노릴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의 본선행 열쇠는 10일 홈경기를 치르는 한국이 쥘 셈이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잡아준다면 북한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조 2위를 확정하며 남아공에 직행할 수 있다.

허정무 한국 대표팀 감독은 경기 후 “처음에는 지옥의 조에 속했다고 하고 어려운 팀과 경기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본선 진출에만 초점을 뒀고 같이 진출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도 함께 진출하면 좋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은 UAE와 경기에서 미드필더 김정우가 퇴장을 당한 데다 수비수 이영표 오범석도 옐로카드 1개씩을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전에 뒤편 수비수 전력 누수가 불가피하다.

남북 형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달아 잡고 나란히 남아공으로 가는 티켓을 손에 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 한국축구 대표팀 귀국

아랍에미리트(UAE)를 잡고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7일 귀국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선수 25명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허 감독과 ‘캡틴’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주영(24·AS모나코) 세 명만 미니 인터뷰를 갖고 곧바로 과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로 향했다.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환한 표정으로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들은 장거리 비행에도 피곤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손은 흔들며 마중 나온 축구 팬들에게 답례를 보였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박지성과 박주영, 이영표(32·도르트문트), 오범석(25·사라마 FC) 등 유럽과 7명도 최종예선 7.8차전을 위해 국내에 들어왔고 K-리그와 J-리그에서도 다시 NFC에서 호흡을 맞춘다. /연합뉴스